

농업·위생검역·의약품 합의 실패

한·미 FTA 1차 13개 협상 마무리 섬유분과 당분간 쟁점별 논의 계속

한국은 9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나흘째 1차협상에서 섬유시장 조기 개방과 무역구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섬유, 농업, 상품무역, 의약품·의료기기 4개 분야에 대한 협상을 끝냈으며 총 17개 분야·자업안 중 13개의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농업과 위생검역(SPS)에 이어 섬유,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도 이견이 커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김중훈 수석대표는 협상후 브리핑을 통해 한국측이 섬유분과 협상에서 미국측에 합리적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관세를 조기에 신속히 철폐함으로써 미국시장 접근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러나 섬유산업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들어 엄격한 원산지 규정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 통합협정문 마련에 실패했다.

섬유분과 협상은 한국측이 수세적이었던 반면과 협상은 한국측이 공세적인 양상으로 전개됐으나 미국측도 완강해 협정문을 작성하지 않고 당분간 쟁점별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김대표는 설명했다.

한국측은 무역구제 분야에서도 김 수석대표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제도로 한국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대표는 협상 모두 발언을 통해 1983~

2005년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총 373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 참석해 한국측 입장을 들었으나 반덤핑제도와 상계관세를 유지시킨다는 미국측 입장을 굽히지 않은채 향후 검토해나가는 반응을 보였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측이 최근 개정된 약가정책에 대해 설명했으며, 미국측은 한국이 도입한 '포지티브' 시스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품무역분과의 경우 우리측이 예외없는 내국민대우 원칙과 물품취급 수수료 및 환관 유지 수수료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견을 완화 조치한 채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9일 협상에서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무역구제분과 통합협정문 마련을 시도하는 것으로 1차 본협상을 마무리짓고, 2차 협상에서는 양해안과 유보안을 교환한뒤 본격적인 주교박기식 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2005년 한국 업체들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총 373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로 인한 자유무역 이익이 크게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 9일 0시20분께 모두 무사히 석방된 박창암(가운데·44·대우건설 과장·순천시시) 등 한국인 근로자 5명. /AP=연합뉴스

“무사히 풀려나 기뻐요”

대우건설 순천 박창암씨 가족

온 국민의 가슴을 울리게 했던 나이지리아에서의 한국인 근로자 피랍사건이 사건발생 41시간만에 전원 석방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피랍자 중 한 명인 대우건설 박창암 과장(45)의 가족들은 박 과장이 9일 오전 0시20분께 무사히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부인 정선녀(38·순천시 용당동)씨와 아들은 자택에서 TV를 통해 석방소식을 전해 듣고 “하루가 10년 같았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씨는 남편의 석방소식이 전해지자

말없이 막내 명훈(4)군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정씨는 “7일 낮 회사로부터 남편의 피랍소식을 전해 듣고 즉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괴로웠다”며 “석방 예정 소식을 듣고도 현지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오히려 초조했다”고 밝혔다.

석방 예정 시간이었던 8일 밤 10시에서 2시간여가 지나 피랍 근로자 석방소식을 알리는 속보가 전해지자 정씨는 “생각보다 빨리 남편이 풀려나 너무 기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한다”면서 “귀국하면 다시는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전남도 기업 투자유치 활기

국내 굴지 정유사 3조5천억 들여 여수공장 추진 日 미쓰비시-한국바스프 여수 등에 1억달러 투자

전남도의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전남도는 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투자유치설명회에서 10개 기업과 3천4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SGS(주)가 다목적 전문시험분석센터 건립을 위해 여수시 일원에 100억원을 투자키로 협약했다고 발표했다.

또 서희건설(주)이 나주호 주변지역 관광지 개발에 1천500억원, 동아스틸(주)은 광양 명당국민산단에 600억원, 대성중공업(주)은 대불산단에 6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모두 10개 기업과 3천42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와함께 도는 국내 굴지의 정유회사를 대상으로 수조원대의 대규모 투자유치 작업을 벌이고 있어 GS칼텍스에 이어 2번째 대형

정유공장이 들어설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내에 3조 5천여억원을 투입해 제2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입지를 모색중인 S정유회사를 상대로 여수산단에 공장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S사는 전남도와 접촉 과정에서 전용부지와 70여만평 규모의 공장 부지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남도는 전용부지 문제는 해양수산청과의 협의의 통해 해결하고 공장부지는 현재 수자원공사가 조성중인 여수산단 확장 부지 47만평에 인근 율촌2산단 부지 23만평을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S사에 제시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일본의 미쓰비시 레이온사와 한국바스프사는 여수 등에 총 1억달러를 직접투자하기로 했다.

미쓰비시 레이온사는 5천300만달러를 투

자해 호남석유화학과 50 대 50의 지분율로 합작기업을 설립, 여수공장과 충남 대산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독일의 다국적 기업 한국바스프사는 4천800만달러를 투자해 전북 군산에 라인산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정의선 기아차 사장 검찰, 기소유예 처분

현대차그룹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9일 ㈜본택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배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또 1천여억원의 비자금 조성·횡령 등에 관여한 김동진 총괄부회장, 이장대 재정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본택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배정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몽구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1,800t급 잠수함 진수 해군이 1천800t급 최신형 잠수함을 9일 울산현 대중공업에서 진수함으로써 우리 군의 수중작전 능력이 3~4배 기량 증대될 전망이다. '손원일함'으로 명명된 이 잠수함은 길이 65.3m, 폭 6.3m에 수중 최대속력이 20노트(37km)에 달한다. /연합뉴스

시설

막오른 지구촌 축제 勝敗 그 이상을 즐기자

2006 독일월드컵이 어젯밤 환상적 개막식과 함께 시작했다. 축구팬은 물론이고 65억 전 지구인이 열광하는 인류의 축제판이 벌어진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경이적 성적을 거둔 한국팀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우리국민들의 열광적 성원을 받으며 역사적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최종 평가전에서 다소 부진했던 한국팀은 대항해 토고와의 첫 대결을 앞두고 자신감을 회복한 채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우리는 이번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후회없는 명경기로 세계인의 가슴에 한국 축구의 강한 인상을 남기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4천만 국민들에게 승패에만 집착하는 옹졸한 국민이 되지 말기를 당부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국민은 새 벽을 밝히며 거리에서 가장에서 태극전사들의 플레이를 목격하려 응원할 것이

다. 그러나 한국팀의 16강 진출여부만 따지고 있기엔 월드컵은 너무나 볼 것 많은 잔치다.

조별리그에서는 우리의 맞수인 일본과 히딩크가 조련한 호주팀의 경기가 있다. 속적 잉글랜드와 스웨덴의 대결, 유럽과 남미의 대륙자존심 싸움인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전도 안보사람만 손해다. 우리가 16강에 오를경우 말발게 될 상대인 스페인-우크라이나 전도 반드시 봐두어야 할 게임이다.

이밖에 영원한 우승후보인 브라질 선수들의 화려한 드리블, 공격보다 더 아름다운 이탈리아 수비수들의 발놀림을 어찌 놓칠것인가. 코트디부아르나 코스타리카 같은 다크호스들이 축구강국을 꺾는 이변이 벌어진다던 어찌 그들만의 환희 일것인가. 세계인들과 함께 월드컵을 깊숙이 즐기며 모처럼 신나는 일상을 살아보자.

대형갈등 부른 교장공모제, 설득 부족했다

가뜩이나 갈등이 많은 우리사회에 또 하나의 대형 갈등이 발생했다. 교육인적 자원부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교장 공모제'에 대해 교직사회가 조직적 반대에 나선 것이다. 한국 교총은 어제 정부청사 앞에서 '교장공모제 반대투쟁 선포식'을 열고 "60년 동안 유지되어온 교원 승진제를 완전히 뒤엎는 교장 공모제는 교단장악을 위해 특정세력에게 문호를 열어주려는 것"이라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학교가 진보진영 인사들로 장악된다는 우려다. 교장단은 정부가 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장 자격증을 반납하며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버티고 있다.

CEO 출신인사들이 교장이 될 경우 교육이 기업처럼 사적 경쟁에 휩쓸린다는 주장이다.

대개 25~30년의 교단경력로 교장·교장강습을 통해 임명되는 현행 초·중·고교 교장은 대다수 교원들의 꿈이다. 교장이 되기위해 그동안 인내와 노력의 세월을 살아온 교원들에게 이 제도는 개혁을 빗자루 낙하산 인사로 보일수 있을것이다.

문제는 우수한 인물을 교장으로 초빙해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려 한다는 교장공모제의 취지설명이 너무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이데올로기만 참여정부 엘리트들이 생산해내는 대형갈등 시리즈의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시행이 늦춰지더라도 이같은 중요시책은 이해당사자인 교직사회의 공감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한다. 교육부의 현명한 대처를 바란다.

■ DJ '좋은 지도자'론 언급 함의는?

현정부 국정운영 '충고'나 대권주자 겨냥한 '훈수'나

5·31 지방선거 이후 잠재적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좋은 지도자"론을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 겨냥한 훈수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은 8일 6·15 남북공동선언 6주년 기념 만찬에서 자신의 '6월 방북'에 대한 심경을 피력하면서 만찬사 말미에 지론인 '국민보다 반발 앞서 나가는 좋은 지도자'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좋은 국민과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평소 해오던 말씀"이라며 "지금 (정치권의) 상황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김 전 대통령의 언급을 묵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DJ의 지도자론 언급이 "좋은 국민은 있으나 국민보다 반발 앞서 나가는 좋은 지도자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었다는 자성이 나오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라는 충고일 수 있는데다 향후 잠재적 대권주자들에게 겨냥한 훈수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만찬에 참석했던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평소 해오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여권 내부의 혼란상을 생각하면 DJ의 언급은 무겁게 다가오는 발언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여야 정치권을 향해 '좋은 국민과 좋은 지도자와의 관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빠있는 말'을 던져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언급의 행간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김 전 대통령은 정동영 전 의장이 '2·18 전담대회'를 통해 당의장 선출된 뒤 취임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정치지도자는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비전을 세우면 역풍이 있어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국민의 탄핵을 받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당장 고사부터 지내야 할까 보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1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부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